

제109차 OPEC 총회 결과

1. 총회결과

- 4.1일부터 OPEC 산유량을 현 목표생산량 (23백만B/D) 대비 171.6만B/D 증산
* '99.3월 추가감산량이 171.6만B/D였음
- 6월에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생산 정책을 재검토
- 차기 OPEC의장으로 베네주엘라의 Ali Rodriguez 에너지장관을 선임 (현임 Al-Attiyah 카타르 석유장관)

2. 평가 및 전망

- 세계석유수급
 - 이번 증산결정으로 OPEC의 생산쿼터는 현 23백만B/D에서 24.7백만B/D로 증가 (이라크 제외)
 - 그러나 각회원국의 쿼터초과생산 가능성(현 1백만B/D)을 감안시 OPEC실생산량은 현 24백만B/D에서 25 ~ 25.5백만B/D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
 - 이는 금년도 연평균 OPEC공급수요 26백만B/D를 충족키에는 미흡하나,
 - 2/4분기중 세계석유수요가 1/4분기 대비 1.5백만B/D 감소(76.8 → 75.3백만B/D)하고, OPEC원유공급수요가 25백만B/D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므로,
 - 2/4분기 수급에는 상당한 안정화효과 기대
 - * 다만, 이번 증산량은 5월에나 소비국시장에 본격 유입되어, 실질적 증산효과는 5월부터 본격화
 - 멕시코, 노르웨이 등 비OPEC 감산 참여국과 이라크가 증산에 가세시 수급안정화효과가 커질 가능성

■ 국제유가

- 이번 증산규모는, 그간 극도로 저하된 세계석유재고수준을 보충키에는 불충분하므로, 수급상의 긴장상황(tightness)이 계속되어 고유가기조는 지속될 전망
- 다만, 재고를 사용하여 수요를 충족하던 그간의 수급부담이 다소 완화되어,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전망
- * 현 세계석유재고는 56억B대로 지난 10년래 최저수준
- 사우디는 단기적으로는 WTI기준 25\$/B, 중장기적으로는 20~25\$/B 수준을 목표유가대로 설정하고 있어,
- 국제유가는 단기적 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우디의 목표유가대로 점차 수렴될 것으로 기대

■ OPEC의 향후 석유생산정책

- OPEC생산정책의 궁극적 주도권은 사우디가 보유
- OPEC회원국중 추가생산여력은 사우디 3백만B/D, 쿠웨이트 0.8백만B/D, UAE 0.4백만B/D로 사우디의 생산정책 여부가 OPEC생산정책의 성패를 좌우
- 강경파인 이란의 추가생산여력은 0.3백만B/D에 불과하여 실질적 영향력은 제약 (기타국은 0.1~0.2백만B/D에 불과)
- 사우디는 유가폭락과 동시에 폭등을 방지해 가는 “유가연착륙전략(soft landing)”을 축으로 향후의 OPEC생산정책을 조율(steering)해 갈 전망
- 이번 증산결정도 이러한 전략에 입각한 단계적 증산정책의 일환
- 앞으로 2/4분기 시장상황과 하반기 세계석유수급전망을 모니터링하여, 하반기 시장상황에 적합한 제2차 생산정책을 6월에 추구할 전망 ☺